

한국 정치사상사 연구의 방법과 방향

李澤徽 (서울교육대)

I. 정치사상사 연구의 학문적 상황

1950년대까지의 정치학은 주로 정치제도, 정치사상사, 정치사 등을 그 주요 연구대상과 영역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기초분과이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정치학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방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학의 과학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상당기간 동안 정치학 영역의 연구를 주도하였다. 정치학의 연구가 실증적, 분석적 방법을 통해 과학적 이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과학자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학 영역의 인식대상이 지닌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인식 과정의 과학화가 과연 정치학 이론체계의 포괄적인 과학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과학적 방법의 동원이라는 전제에서 실증적·경험적 접근만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치학 영역에서 불가피하게 내포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포되어야 하는, 가치관계적(wertbeziehend) 연구대상들을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정치학 연구영역을 비정상적으로 축소시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실제로 1960년대로부터 1980년대 초엽까지의 정치학(특히 한국의 정치학)은 이러한 자기모순을 심각하게 겪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학화의 경향은, 1960년대 이전의 정치학의 연구가 대체로 기존의 정치제도, 정치사상, 그리고 관념론적 정치철학에 관한 평면적 기술의 차원에서 맴돌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치행위의 본래의 주체인 인간중심의 시각에서 인간의 정치적 형태를 경험적이며 가치중립적인 분석을 통해 일반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념의 틀'(conceptual framework)들을 구성·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정치학의 새로운 이론체계 수립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

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이 시기에 체계화된 정치학의 이론들은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인정됨으로써 일견 과학적 정치학의 정립에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그 결과 개체로서의 또는 집단으로서의 인간행위의 주관적·가치관계적 변수들이 파생하는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문제와 이러한 해석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적 가치가 창출되거나 선택되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은 방법론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제외되거나 포기됨으로써 정치학 연구영역의 본질적 일면을 축소·제약하는 모순을 안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공동체의 운영이나 체제의 구성 및 선택에 관한 이념·사상·철학의 문제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치학 연구영역에서 그러한 주제들을 未濟의 場으로 남겨놓는 罅를 남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구조기능주의·경험실증주의 편향의 과학적 정치학 지향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응하여 정치사상, 정치이념, 정치사, 그리고 정치철학, 정치경제학 등에 관한 새로운 조명이 시작되었다. 미국 정치학계의 경우를 보더라도 후기 행태주의(post-behaviorism)에 관련된 논쟁기를 거쳐 사상사적·철학적,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접근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치사상사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다시 부각되고, 한국의 정치학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서서히 커지는 가운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문적 민족주의의 추세에 대응하여 한국정치사상사, 한국정치사, 한국정치론 등에 관한 관심과 연구열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II. 정치사상사 연구의 기본적 전제

일반적으로 정치사상사에 관한 연구는 세 가지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로,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왜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정치사상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전제가 된다. 둘째로, 정치사상사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탐구하는 분야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정치사상사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이다. 셋째로 정치사상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정치사상사 연구 방법의 모색 또는 방법의 선택에 관련된 기본적 전제이다. 적어도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그것이 어떠한 시각이나 차원에서 시도되는 연구이건 그러한 세 가지 기본적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이루어져야 한다.

(1) 정치사상사 연구의 목적

정치사상사 연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전개될 수 있다. 울린(Sheidon Wolin, *Politics and Vision*, Boston, Little, Brown & Co., 1960)에 의하면 정치사상사 연구는 정치학 영역의 개념(용어)들과 정치현상의 범주들에 익숙하게 하고 정치적 비전(vision)을 제시해 줌으로써 정치학적 인식에 기본적으로 기여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이스튼(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81)류의 학자들은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정치사상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정치학에 있어서의 역사적 접근(historicism)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기에 와서 그들 스스로 후기 형태주의 혁명을 선언함으로써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 영역에서 역사적·가치관계적 접근과 실증적·구조기능적 접근의 분리론을 수정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정치학 영역의 기초분야로서 정치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사 연구의 목적은 정치학 연구영역을 다차원적으로 심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치사상사 연구는 정치문화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된다. 비교정치학에 있어서 중요한 분석의 준거가 되고 있는 정치문화에 관한 포괄적 탐구는 그 기초에 내재한 정치사상의 흐름을 이해함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와 사상은 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정치체계에 관한 분석이나 정치제도에 관한 분석에 대하여 기본적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정치사상이란 역사적 상황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진공관 속에서 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사상은 기존의 정치체제나 현존하는 정치제도와와의 상관관계에서 발생·형성·전개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사상은 기존의 정치체제나 정치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논리로 구성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부분적 또

는 전체적으로 변화·개혁시키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진보적·개혁적 정치사상은 기존의 정치체제나 정치형태가 지닌 문제점이나 모순에 대한 인식이 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의 맥락에서 보면 어떠한 정치사상가도 그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들을 그의 사상의 내용이나 그의 사색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 민족 중심적 성향(ethno-centrism)을 엄격하게 초월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객관성 있는 정치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장 유토피아적인 정치사상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정치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그것과 관련 있는 사회문화체제의 포괄적인 속성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한편 위대한 정치사상들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적 인식과정에서 사색적 능력과 비판적 능력을 제고시킨다. 상상력이나 비판적 능력은 단순히 인간의 자연적 속성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나 업적과 접촉함으로써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정치학적 인식의 영역을 넓히어 비교분석적 안목을 갖게 함으로써 특정의 敎義나 편협한 독선에 빠지는 위험성에서 벗어나 可逆的·자기비판적 재창조 능력을 제고시킨다.

정치사상의 연구는 또한 정치학 연구가 靜態的 경향에 빠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정치학의 연구는 역사적이며 動態的인 시각의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학은 폐쇄된 세계를 인식대상으로 국한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불변의 기구나 구조만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학의 인식과정은 본질적으로 동태적인 것이다.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시대와 상황의 차이에 대응하는 동태적 변화에 관한 정치학적 분석에 있어서 그 중요한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사상사의 연구가 비교정치학의 기초적 자료들을 공급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업적들은 현재의 정치행태의 비교분석을 위한 필수적 자료들이다. 정치사상사 연구의 풍부한 결과들을 검토하여 재구성하면 필요한 비교분석을 위한 뜻있는 자료 또는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사상사는 정치학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개념, 이론적 모형, 가설, 방법론 등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치학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다양한 연구계획(scheme)과 방법론의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 정치 사상사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정치사상사의 연구대상과 그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첫째,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기존의 정치이론 또는 현존하는 정치이론을 개별적 주제로 하거나 포괄적 주제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종합하고 재구성하거나 평가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물론 여기에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학설사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방법론 자체에 관한 논의와 논쟁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대체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채택, 사용한 진리추구의 방법 또는 이론형성을 위한 접근방법들을 비교·분석하고 비판하여 더 세련되고 보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색·관찰·탐구의 방법을 모색하여 제기하는 작업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접근을 비판하고 현실주의적 분석을 시도한 이래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하고 유물론을 제기했던 사실. 그리고 콩트(A. Comte)의 실증주의에서 베버(M. Weber)의 이념형에 이르는 방법론상의 논쟁, 또한 신칸트학과와 역사과학 또는 문화과학의 개념으로부터 미르달(G. Myrdal)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가치문제”에 이르는 논의들이 대체로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셋째,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흔히 정치적 신념의 체계(이를테면, 왕권신수설이나 군주주권론 또는 天命論 등등)나 이와 유사한 가설(예컨대, 사회계약설, 국가유기체설 등등)에 관한 개별적 연구 또는 비교분석적 연구를 포함하며,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논의와 분석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실제로 이데올로기란, 근·현대에 와서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즉 최상의 정치공동체 운영원리를 선택하는 가치판단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 원리에 따라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체제 정당화의 논리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하나의 비전(vision)으로 제시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신념체계로

내면화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근·현대 정치사상사 연구에 있어서 “내셔널리즘”(민족주의 또는 국민국가주의)을 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해서는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견해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물론 그것이 근세 초 절대주의 정치체제의 등장과 함께 대두하여 제국주의의 기초가 되었던 서구의 팽창주의적 내셔널리즘이거나, 서구에 의해 식민화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제3세계에서 전개된 저항적 내셔널리즘이거나 간에, 이 모두가 하나의 정치적 신념체계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중국에서의 宋代의 주자학적 정치이념이나 조선 후기의 斥邪衛正論 등도 한결같이 내셔널리즘의 정향을 갖는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정치사상사 연구는 이른바 역사적으로 “위대한 정치사상가 또는 정치이론가”들에 관한 분석과 논평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연구가 기존의 정치사상사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연구경향을 이루었던 시기도 있다. 이를테면 서양정치사상사의 경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루소(J. Rousseau), 마르크스(K. Marx), 그리고 맥이버(R. MacIver)나 라스키(H. Laski)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국정치사상사의 경우 공자나 제자백가로부터 梁啓超나 康有爲에 이르기까지, 또한 한국정치사상사에서는 趙光組, 李滉, 李珣에서 李恒老, 金平默, 金玉均, 徐載弼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시대사와의 연관 속에서 이들 정치사상가들에 관한 개별적 접근들이 그 지배적인 연구 유형이다. 그런데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셋째의 연구에 원용되거나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사상사 연구는 아직까지도 주로 이 넷째의 범주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3) 정치사상사 연구의 방법

정치사상사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논의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첫째, 특정한 이론적 주제나 특정의 정치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는 체계적 접근(systematic approach)에 의한 정치사상사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정의의 문제, 국가이론의 문제, 자유와 평등의 상관관계 문제, 성리학적 정치이념의 토착화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정리 등이 이 범주의 연구방

법에 속한다.

둘째, 정치사상사의 연구에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포괄적인 정치사상의 흐름을 주로 年代期的 전개과정에 따라 고찰해 보는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에 의한 업적이 많다. 정치사상의 흐름을 通史的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이 방법은 평면적 기술이 주가 되지만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기도 하다.

셋째, 정치사상사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또 하나의 연구방법은 비교적 접근(comparative approach)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특정의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들, 특정인들의 견해, 특정한 전통들이 상호 비교분석의 대상이 된다.

넷째,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많은 경우에 정치사상이 담긴 문헌, 특히 고전의 원문분석에 중점을 두는 문헌적 접근(textual approach)에 의존하고 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에 관련된 고전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정치사상사 연구의 중심과제로 삼는 것이다(김영국 편, 『現代政治學의 對象과 方法』, 서울, 法文社, 1981, 22~24).

이홍구 교수에 의하면 체계적 접근의 대표적 연구업적으로 밀러의 『사회정의론』(D. Miller. Soci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1976)을, 역사적 접근의 대표적 저술로는 새빈의 『정치사상사』(G. Sabine and T. Thorson,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4th edition, Dryden Press, 1973)를, 비교적 접근의 탁월한 사례로는 던칸의 『마르크스와 밀』(G. Duncan, Marx and Mill: Two Views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Harmo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과 포스터의 『플라톤과 헤겔의 정치사상』(M. Foster, The Political Philosophies of Plato and Hegel, Oxford University Press, 1935)을, 그리고 문헌적 접근의 전형적 사례로 머피의 『플라톤의 國家論註解』(N. Murphy, The Interpretation of Plato's Republic, Oxford University Press, 1961)를 예시하고 있다(김영국 편, 앞의 책, 21-22쪽의 주해).

그런데 비교적 접근은 대개 체계적 접근이나 역사적 접근과 함께 사용되거나 상호보완적으로 원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체계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은 동시에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문헌적 접근은 앞의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先行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방법론적 범주에 따라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업적들 가운데서 정치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저술만을 분류해본다면, 洪淳熙교수의 『한말의 민족사상』(서울, 탐구당, 1975), 崔昌圭교수의 『근대한국정치사상사』(서울, 일조각, 1972), 金漢植교수의 『실학의 정치사상』(서울, 일지사, 1979) 등을 체계적 접근의 범주에, 그리고 朴忠錫·柳根鎬교수 공저의 『조선조의 정치사상』(서울, 평화출판사, 1980), 朴충석 교수의 『한국정치사상사』(서울, 삼영사, 198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조선조 정치사상연구』(동 학회 논총 제4집, 서울, 평민사, 1987) 등을 역사적 접근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신화시대이래 고조선으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통사적 저술은 적어도 한국정치사상사라는 차원에서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비교적 접근의 범주에는 韓홍수 교수의 『근대한국민족주의연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7), 金영작교수의 『한말내셔널리즘연구』(서울, 청계연구소, 1989) 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19세기 후반의 조선조에서의 민족주의의 태동과 관련하여 정치사상의 계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앞의 세 가지 범주의 연구방법을 위한 기초자료의 공급이라는 시각에서 문헌적 접근은 다른 접근들을 위한 선행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활용될 뿐이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정치학 영역에서 한국정치사상사의 고전이나 원전을 판독하고 註解하여 정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배양하지 못하였다는 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이 까닭에 한국정치사상사에 관한 연구가 정치학 영역 내에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李建昌의 黨議通略原理註解」(拙稿, 사회과학연구 제4집, 西原大學校 사회과학연구소, 1991) 등의 논문이 발견될 뿐이다.

Ⅲ.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의 문제점

앞에서 정리해 본 정치사상사 연구의 기본적 전제들, 즉 정치사상 연구의 목적·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방법론적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역사적·비교적·문헌적 연구업적

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업적들의 대부분이 특정한 사상가의 정치사상이나 이론에 관한 연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의 정치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전개된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들로서 대체로 개별적 주제에 관한 체계적 접근의 연구업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던닝(Dunning), 자네(Ganet), 게텔(Gerell), 새빈(Sabine) 등의 서양정치사상사 연구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포괄적이고 통사적인 대하적 연구업적이 미진한 실정이며, 그러기 때문에 한국정치사상의 역사적 변용에 관한 포괄적 문맥을 이해하려는 전문적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기초적 관련문헌이나 2차적 연구자료를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어 왔다.

(1) 현실 인식과 가치부여

한국의 정치학 분야에서 이 방면의 연구가 부진하였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연구의 대상 및 목적에 관한 논의 참조) 1950년대 말경부터 한국의 정치학 분야를 압도해 온 아메리카 사회과학의 영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학의 인식대상에 관한 價値關係的 해석이나 관념(ideas)의 역사적 변용에 관한 연구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19세기 후반부터 지속되어온 사회과학적 인식에 있어서의 가치에 관한 논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결국 사회과학적 이론의 구성이 현실인식(Wirklichkeitserkenntnis)과 가치부여(Wertung)의 불가분의 결합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사상사란 정치이론 자체가 정치의 일부분이라는 가설 밑에서 기록되는 것, 즉 정치이론이란 정치가 존재하는 정상적 사회상황의 일부로 이루어진다는 새빈의 견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새빈, 앞의 책, 초판본 서문).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정치사상사에 관한 연구도 실증적이고 微視的인 연구에만 흐를 것이 아니라 敎養史의 차원에서건 知性史의 차원에서건 또는 觀念史의 차원에서건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명될 것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한국정치사상사 연구가 미진한 또다른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연구의 방법에 관한 논의 중 문헌적 접근 부분 참조) 史料나 원전 등의 1차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자가 적어도 정치

학 분야에서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필요한 1차자료가 당초부터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의 해독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可用資料의 정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때때로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연구업적이 나오긴 해도 원전의 인용 또는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함으로써 결국 왜곡된 견해를 남겨나 심지어는 독단적인 주장을 남겨놓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에서 또하나의 제약은 조선조 이전의 시대에 엄격한 의미에서 정치사상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국정치사에서 정치체제나 정치권력의 이론적 支柱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이념이 구축된 것은 16세기 退溪에 의해서 주자학적인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이 확립되고 栗谷에 의해서 상황론적 인식에 바탕하는 정치적 리얼리즘(realism)이 제시된 이후부터라고 본다면 그 이전의 시대에서의 정치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포괄적으로 체계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박충석·유근호 공저, 앞의 책, 제1장 참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가 주로 조선조 이후에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국 편, 앞의 책, 256쪽).

끝으로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는 또하나의 存在拘束性(Seinsgebundenheit)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식민지적 역사인식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사상은 앞에서 여러번 지적한 대로 정치적 현실과의 관련에서 형성되고 전개된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사의 연구는 정치사와의 상관관계에서 분석되고 정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치사상사 연구는 어떠한 시각의 역사인식 위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또하나의 기본적 전제가 된다. 왜곡된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정치사상사의 연구결과는 객관성을 상실한 편향된 논리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사는 아직도 식민지적 역사인식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정치사 연구와의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져온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는 식민지적 유산에서 완벽하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식민지적 역사인식의 탈피문제

우리는 기존의 한국사 기술에 대한 반성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 즉, 지금도

활발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이른바 식민지사관 탈피에 관한 문제와 함께 이에 대응되는 민족사관의 정립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실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어온 교과서를 포함하여 종전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한국사의 대부분이 대개 식민지적 안목에서 기술되었던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광복 이후 한국사를 다시 찾고 재인식하여, 이러한 새로운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새국가건설에 임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은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저술된 일련의 한국사 연구업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손진태, 장도빈 선생들의 한국사 저술활동이 광복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선정·편찬되어야 하며,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광복 이후에도 일제하에서 조선총독부주도하에 편찬·기술된 국사교육의 내용이나 틀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주로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방대한 『조선사』가 기초가 되었고, 이 방대한 분량의 『조선사』는 주로 당시 경성제국대학에 와 있던 일본인 사학자들과 이들에 의해 교육된 한국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편찬된 것이었는데 주요한 이유가 있다.

광복 이후, 일제하에서 민족사의 연구에 열의를 바쳤던 인사들이 대개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또는 정치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되자, 역사교육에 필요한 한국사의 기술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찬에 참여했거나 그러한 역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물론 이들 역시 광복 이후 식민지적 역사인식의 안목에서 벗어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사인식 속에 깊게 뿌리 박힌 지식이나 방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이들이 역사기술과 역사교육을 주도했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우리를 대다수의 한국사 인식은, 비록 1980년대부터 획기적인 전환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일차적으로 무력에 의하여 지배하되, 식민통치를 영속화하기 위한 음모를 치밀하게 추진하고 다각적인 식민지 동화정책을 구사하였다. 그 중에서 한국사 정리작업을 들 수 있는데, 한국사의 취약점을 강조하고 그 장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료를 선택하

고 이렇게 선정된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사를 기술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한국지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사의 주요 기록은 대개 중국측 자료에 의존해 왔다. 중국의 정사에 해당하는 18사 또는 25사에 수록된 한국사 관련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료가 되어 온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사』도 이러한 중국측 사료를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支那史料抄」 등을 발간한 바 있다. 이것은 중국사에서 한국사에 관련된 기록들을 뽑아 놓은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편찬했다는 것이 일본제국주의 사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료를 해석하는 시각에 있었던 것이다. 또 사료를 선별적으로 이용한 점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즉 한국사에 있어서 융흥했던 정치와 문화의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반면에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았거나 식민지가 되었던 부분, 그리고 내부적 갈등과 분열에 관한 기록들을 확대하여 한국사를 편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사의 편찬에 참여했거나 그런 역사를 한국역사라고 교육 받은 인사들에 의해서 한국사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그것이 학문적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광복 이후의 역사교육이 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기에 일본인들이 해놓은 것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오류를 반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그러한 한국사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역사는 피침의 역사요, 피압박의 역사요, 분열과 갈등과 당쟁의 역사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역사인식을 보편화시켰던 것이다. 물론 한국사의 흐름에 있어서 당쟁이 있었던 것도, 내란이 있었던 것도,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한민족사의 흐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통해 균형있는 평가를 받지 못한 점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IV. 한국 정치사상사에 관한 담론의 개방화를 위하여

그와 같은 시각에서 한국사가 기록·편찬되고 또 그것이 교육의 내용으로 되다보니 한국사의 인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와 모순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서 그것을 기초로 하는 다른 분야의 학문적 연구들, 특히 분류사 분야의 연구들이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조선조의 정치사 및 정치사상사의 기술에서 나타나는 왜곡과 오류이다.

조선조의 정치체제를 관리하는 원리가 유학(주자학 또는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결국 그것이 조선조의 근대화를 저해하게 되었다는 독선적 역사 인식을 그 전형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 인식으로 말미암아 조선조의 정치체제를 관리·운영해온 기본원리들을 제공한 한국의 전통적 정치사상을 “진부하고 봉건적이다” 또는 “수구적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주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왔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 사학자들은 한국사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불리한 사료들을 “실증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선별적으로 이용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에서 취급된 사실 중의 하나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조선조의 정치사상사체계에 대한 평가였다. 그런데 고대국가를 제외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5백년 이상을 정통성과 자율성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존속한 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며, 어떻게 보면 경이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5세기 이상을 존속한 조선조는 그 정치체제를 지탱해온 일관된 이념의 기초로서 유교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5백년 이상을 생명력을 가지고 기능해온 정치사상이 그렇게 수구적이었고 근대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고만 평가해도 좋은가 하는 점에 대하여 냉정하고 균형있는 재음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유학이나 성리학 사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수구적이고 봉건적인 것, 현대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따라서 그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물론 사상은 자꾸 새로워지고 이념도 새로워지며, 공동체의 운영원리도 새롭게 바뀌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그러나 사상이나 역사는 그 흐름이 갑자기 단절되어 단층을 이루는 일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사상이나 역사의 흐름은 단절의 차원이 아닌 계속의 원리에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5백년 이상을 지탱해 온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뒷받침해 주었던 이념이나 정치사상을 그렇게 부정적 시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조 5백년을 관통해 온 성리학적 정치사상이 거둔 최후의 결실이었던 斥邪衛正사상과 운동에 대한 종래의 평가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후기의 척사위정사상이나 운동이 침략자로서의 일본을 외부로부터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1870년대 이후부터 적극적 배일의 논리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하고 점령하였을 때 이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척사위정의 정치사상, 특히 초기의 척사위정론이 그 기저에 수구적 정향과 모화적 정향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 이점이 민족사의 시각에서 척사위정론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긴박한 대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배외·항일의 기조 위에서 강렬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사상과 운동을 전개하는 단서를 연 것이 또한 척사위정의 정치사상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여기에서는 일제가 일제의 식민통치기를 어떻게 정당화시켰는가 하는데 관한 논의보다도, 일제의 식민통치가 한국정치사 및 정치사상사를 어떻게 왜곡했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논의를 위해 일제가 특히 조선조의 정치사 및 정치사상사를 식민통치를 위한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연원을 실학사상과 관련시킨다. 심지어는 실학을 성리학 사상과 대립되는 사상의 맥락으로 보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실학의 정치사상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학사상이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며, 개화사상이 곧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연원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화사상의 중요한 부분 속에 일제의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논리는 묘한 딜레마에 빠진다. 실학은 정치사상의 시각에서 보면 혁명적인 사상도 아니었고, “체제부정적”인 사상도 아니었다. 실학사상의 맥락도 조선조의 성리학 사상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틀 안에서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한 논의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척사위정의 사상이 부정적 측면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 것

처럼, 개화의 사상도 긍정적 측면을 갖고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에 그 나름으로 기여한 점이 있다고 양시론의 관점에서 조선조 후기의 정치사상의 전개를 논의해야 비로소 양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항일 민족주의 운동으로 합일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조선조의 정통적 성리학 사상과 실학의 정치사상을 대립관계로 보려는 견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조의 성리학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 학자들의 의도적 해석에 영향을 받은 논리가 남아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란 갈등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통합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갈등의 측면에서만 역사를 보는 것은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결과를 낳고, 통합의 측면에서만 역사를 보는 것도 역사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역사는 어느 하나의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는 갈등과 통합의 부단한 진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한국정치사와 정치사상사를 부정적 측면에서 기술한 점을 다시 점검하여 밝히는 일은 조화와 통합을 기조로 하는 민족주의적 정향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보겠다. 한국정치사상사의 연구는 그 인식과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식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도 기초분야의 연구업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개방적 논의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특히 최선을 다하여 균형을 유지하며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는 역사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는 문헌적 연구가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문헌적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역사적·비교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문헌적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 통사적 체계 구성에 관한 노력이 요청된다.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통사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교양사의 측면에서건 전문적 분류사의 측면에서건 다양한 한국정치사상사에 관한 담론의 전개가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미시적 접근이건 거시적 분석이건 한국정치사상사 연구가 빠지기 쉬운 일반사나 일반사상사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치학적·사회과학적 수준의 논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정치사상사 연구는 그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개방적 논의를 통하여 담론을 전개해가되 그 정리와 체계를 세우는 작업은 다각적인 사회과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과 방향은 한국현대정치사상의 흐름에 대한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